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력

금마고도 도시재생 거점시설 ‘금마공감터·선화다실’ 준공식·도시재생 마을축제 개막

익산 금마고도 지역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금마공감터’와 ‘선화다실’이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금마공감터와 선화다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마을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돼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금마공감터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목공·다도 등의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마을 체험소이며, 선화다실은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카페로 운영된다. 두 거점시설은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금마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양현명)

이)이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3회를 맞은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마을축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금마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중심으로 기획·운영됐다. 축제는 △열쇠고리 만들기 △레이스 페인팅 △미용이 비누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을 비롯해 먹거리 부스, 벼룩시장,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전시돼 도시재생 사업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했다. 양현명 이사장은 “이번 준공식과 마을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으로 도와주신 익산시와 금마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거점시설 운영을 통해 금마 고도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마을축제 개최와 거점시설의 준공을 축하한다”며 “금마공감터와 선화다실이 금마고도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마을축제는 12월 21일까지 2주간 금, 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

주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공간·지역 커뮤니티 허브 역할 기대

군산시 옥서면 행정복지센터가 13일 신청사 이전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시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관내 기관장, 자생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새 단장한 옥서면 신청사 개청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개청식은 옥서면 지역아동센터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경과보고, 시장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환영사,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기념비제막식,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공향과 미

공군 군산기지가 위치하여 전북의 하늘길과 군사 요충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옥서면 행정복지센터가 쾌적한 장소로 단장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옥서면 행정복지센터는 구축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에 착공했고, 1년 11개월의 공사 끝에 행정복지센터와 사통팔통문화복지센터의 복합청사로 완성되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가족 문화복합시설 ‘다우리’ 준공

사업비 100억원 투입·여성회관·가족센터 등 5개 기관 입주
통합적 가족복지 지원... 상담·교육·돌봄·문화활동 등 제공



익산시가 한층 향상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족 문화복합시설 ‘다우리’는 14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보편적인 가족생활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다우리’는 △다이로움 △모두 다 △

다양한 △다문화 등을 아우르는 뜻을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모현동2가 303-6번지 일원에 조성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934㎡ 규모로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을 갖췄다. 기존 익산시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여성단체협의회, 공동육아나눔터가 다

우리로 이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이 신설되는 등 5개 기관이 입주한다. 이에 돌봄·상담·교육·문화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게 된다. 1층은 △다목적 가족 소통 공간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위치하고, 2~3층은 △여성회관·가족센터·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상담실이 마련됐다. 4층은 강당과 요리 교육실 등으로 꾸며졌다. 시는 다우리 누리집을 구축해 보다 간편하게 입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우리는 시민의 삶을 행복하고 품격있게 하는 복합 시설로 국적, 성별, 세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생활문화 저변 확대와 정주 여건 기반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상’ 수상

지난 13일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산시는 2021년 최우수,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기관 선정 올해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

굴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업 관리 및 발굴 노력 등에 따라 사업 효과가 달라져 이상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군산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뿐만 아니라 중·장년 1인 가구 및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초등 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든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군산시는 14개 시군 중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교장은 “시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수상까지 해서 정말 기쁘다”라며, “시민들이 발전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 특화 유아교육·보육 우수성 입증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익산시가 지역특화형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는 지역 주도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평가에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 지역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내년 사업비로 5억4,100만원을 확보했다. 평가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 유아에게 폭넓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한 점이 우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익산시도시관리공단과 협력해 운영한 ‘생존수영체험’은 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익산공공승마장에서 진행된 ‘유아 승마를 포함한 동물친화체험’과 숲·공원을 이용한 ‘기후위기대응 숲·생태 체험’ 등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우수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디지털놀이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해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견인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유아들에게 실질적이고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유아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2025년 중3 진로 탐색
길잡이동계캠프참여자 모집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중3 진로 탐색 길잡이(멘토링) 동계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군산대 인문대학에서 1기와 2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군산시 출신 주요 대학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학습과 진로에 대한 개별적 상담을 제공하며, 인공지능(AI)기반 진로 탐색과 4차산업 프로그램 체험을 포함한 흥미로운 활동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 △입시 전략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부모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모집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군산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이면 누구나 네이버 폼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후 추첨제로 100명을 선발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어린이 청소년의회
제9기 수료식 개최

군산시는 지난 14일 제9기 군산 어린이·청소년의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9기를 맞는 군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수료식은 어린이·청소년의원, 학부모,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9기 어린이·청소년의원 연간 활동영상 시청, △지난 하반기 정례회 가결안건 반영에 대한 부서검토 결과를 포함한 경과보고, △수료증 수여, △의회 활동 우수자 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군산’을 주제로 실시한 2024년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입상자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